10.18219/ddmh..112.202012.113

동아시아 근대 매체, 언어, 검열 연구의 궤적과 미래*

李惠鈴**

Ⅰ. 식민지 근대성: 2000년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전후의 화두
Ⅱ. 근대 문화제도로서의 매체·근대어·검열 연구와 식민지
Ⅲ. 사상을 지닌 인간 또는 지식의 이동, 그 임계 동아시아 탈식민 냉전·분단체제
Ⅳ.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로서의 역사, 또는 다른 삶

• 국문초록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은 개원 시점부터 동아시아, 식민지 근대성과 같은 화두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조직하였다. 공동연구는 근대어, 근대 매체, 검열 등으로 이어진 연구 아젠더로 가시화되었다. 이를 제안한 이들은 임형택, 한기형, 류준필, 박헌호 등 한국문학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탈식민 분단 체제 하에서 민족주의와 문학의 신화화를 통해 구축된 국문학이라는 제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여, 문학이라는 제도를 형성시켜 온 제도와 규범, 그 주체들에 대한 더 두터운 역사화의 길을 개척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말 소비에트의 붕괴로 자본의 전지구화와 그 주체성 형성의 기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특별한 계기로 쓴 이 글의 의의와 한계를 진중하게 짚어 준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성과만이 아닌 한계,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만이 아닌 해당 연구분야를 폭넓게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순전히 필자의 역량 부족 탓이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이나 그 소속 연구자들이 시작과 매개의 역할을 한 학술활동이라는 실로 많은 연구자들과 연구기관, 학회가 함께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 주안을 두었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

을 현재주의적으로 보충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진 근대성, 나아가 식민지 근대성을 운위한 일군의 연구와도 길을 달리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매체, 언어, 검열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식민화와 냉전하의 분단이라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낸 근현대 한국인들의 자기 표현을 향한 의지와 실천이라는 데 있었다. 이에 20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압의 대상이었던 사회주의는 매체과 검열, 염상섭 문학 연구에 관통하는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상의 공동연구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로서의 역사 또는 다른 삶의 지향이라는 인문학적 주제를 환기시킨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여러 학회와의 공동연구로 여성의 표현과 쓰기의 역사로서 여성문학과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과 그 주변의 교육, 연구활동이 현재 주목받는 페미니스트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문학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제어 : 동아시아, 식민지 근대성, 근대매체, 근대어, 검열, 문화제도, 사회주의, 페미니즘

Ⅰ. 식민지 근대성: 2000년 동아시아학술원 창립 전후의 화두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은 학술사적으로 연구 아젠더 및 환경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창립되었으며 그 전환을 주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학술원의 "근현대 문학연구" 성과[1]를 짚어보기 위해 필자는 지나온 시대의 풍경을 되새기는 것으로 말문을 열고자 한다.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권이 몰락하는 세계사적 시간에, 한국 사회는 87체제라고 일컬어지던 제도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가 맞물리는 형태로 개주되고 있었다. 이때 한국 인문사회학계에 대두한 아젠더인 식민지 근대성은 그 출발부터 동아시아 프레임에서 근대라는 역사철학적 시간성의 경험과 인식,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논쟁을 가져왔으며 이는 서구 학계로부터 제출되어 동시대를 풍미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한국의 경우, 역사서술의 텔로스였던 서구 중심주의에 기반한 근대성 · 근대화론만이 아니라 죄우파의 역사인식에 공히 내재한 민족주의를 심문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3] 식민지 근대성이란 화두

---

1) 대동문화연구원 50주년을 기념하여 진재교 교수는 당시까지의 성과를 짚어낸 바 있다. 진재교, 「한국문학 연구와 '대동문화연구원'-동아시아학으로서의 연구지평 확대와 연구방법론의 창신」,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7, 51~77. 진 교수는 대동문화연구원의 개원 당시부터 문 · 사 · 철의 통섭과 학제간의 연구를 추구해왔으며, 전근대와 근대의 통섭하는 아젠다를 끊임없이 발굴해왔다고 평가하였다(이하 교수, 연구교수 등의 직책 등 이름 이외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겠다. 동아시아학술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한 많은 연구자들의 소속과 직위를 가려 언급하기 어려울뿐더러 수평적인 학술문화의 진작을 위해 삼가도록 한다).

2) 동아시아 문화 연구 학술지인 Position은 1993년 창간과 함께 "colonial modernity"라는 주제를 제안하여, 일련의 논문들을 싣는다. 이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을 수록한 단행본을 1997년 간행한다.Tani E. Barlow (ed), *Formations of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1997(여기에 기고한 필자인 최정무, 찰스 암스트롱, 도미야마 이치로, 왕후이, 리디아 류 등 그들의 대표적인 저작이 이천년대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그 후 십여 년 간의 논쟁에 대한 타니 발로우의 정리와 제언은 다음을 참조. Tani E. Balow, Debates Over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and Another Alternative, *Cultural Studies*, Vol. 26, No. 5 September 2012, pp.617~644.

3)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싹튼 남한의 진보적 역사인식의 원천이라 할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에서는 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동아시아아학술원의 창립과 함께 부임한 미야지마 히로시와 동아시아학술원에 재직 중이었던 윤해동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한 바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3; 윤해동, 「'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도면회, 윤해동 엮음,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251~284면. 많은 논자들이 내재적 발전론을 태동시키고 그것을 매개로 한 지식장은 역사학에 국한된 것이

는 학계에 내재된 서양 중심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키메라적 성격에 대한 한국학계의 자기 성찰성을 드러낸 장이었지만, G2로서의 중국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세계체제 내에서의 위상 상승이라는 물적 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식민지 근대성론의 어떤 국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기원, 정통성과 관련된 역사전쟁으로 치달았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국민을 반분하는 진영화된 이데올로기로 전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4]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과거사에 대한 화해무드 속에서 상당히 호혜적이고 이상적인 성격을 띤 한국 발 동아시아론의 행방 또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신 냉전의 국면과 함께 묘연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필자가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성과를 회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전 새로운 세기가 눈앞에 펼쳐지던 시점에서 현재의 기원에 대한 계보학적 탐사의 화두로 제시된 근대성, 식민지 근대성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식생산자로서 자신의 지역, 국적, 젠더, 계급 등을 고려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분야가 서로 넘나드는 학술적 장을 만들었다. 이는 앞으로의 학술문화를 위해서도 되새겨 볼 일이다. 무엇보다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논제의 부상 이후 문화사적 접근 또는 문화사 연구로의 경향성이 형성되었으며,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문후속세대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여기서 이러한 학술장의 재구성과 경향성을 주도한 학계는 일군의 '국문학' 연구자들이었으나 '국문학'이

아닌 문학, 철학 등의 분야를 포괄한 것으로 볼 때, 그 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4.19 이후 어느 정도 활기를 띠었던 지식장이 장기집권을 위한 모든 폭력적 수단들을 동원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경색된 가운데, 『창작과비평』과 같은 지식인 매체를 중심으로 문학 및 문학비평을 매개로한 '역사-비평'으로서의 글쓰기를 탄생시켰음을 논의한 바 있다. 덧붙여, 내재적 발전론이 서구 모델을 규범화하는 서구중심주의라거나 목적론적인 근대주의라는 비판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역사인식이 당대의 물질적 환경과 사회관계, 지적 교섭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도 있다. LEE, Hye-Ryoung, Time of the Nation, Time of the Capital, *Korea Journal*, 47, 2011.

4) 이 글에서 상론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촛불시위를 통한 두 전직 대통령의 몰락이 친일 및 과거사 청산의 실패까지를 포함한 '적폐'라는 프레임을 정당화시킨 한편, "종북" 프레임이 적어도 정파적 정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낙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는 안정화되었으며 그것을 뒤흔드는 정치세력은 이미 도태되었다는 암묵은 광범위한 것 같다. 그럴수록 "종북" 프레임은 광신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그럴수록 페미니즘 이슈와 소수자 정치는 기득권적 정치세력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드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 분과학문을 초과한 것이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들과 함께 학술장을 만들어 왔으며 이는 20여년 간의 연구의 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학술원이 3·1운동 90주년을 기념한 학술회의와 그 성과인 단행본『1919년 3월 1일에 묻다』(2009)에서 이 기획을 마련했던 편자들인 박헌호와 류준필은 "21세기 들어 한국문학 및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문화사적 연구 경향이 한국학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래 한국 인문학에서 일었던 연구경향의 변화를 3·1운동과 접목해 보려는 시도로서 기획되었다. 3·1운동 90주년이라는 시간적 계기에 힘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필 3·1운동을 그런 접목의 대상으로 상정한 것은, 이 운동이야말로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보편적 보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1운동에 대한 돌파가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진전에 불가결하다고 믿었다는 뜻이기도 하다."[5]고 밝혔다. 즉 3·1운동에 대한 문화사적인 연구를 의도했던 것이다.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의 경우, 3·1운동이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권 창출의 문재인 정부가 리드하다시피 한 역사전쟁의 뜨거운 지대가 된 현실[6]을 돌이켜본다면, 이러한 시각은 역설적인 의의를 띠는 것 같다.[7] 문화사적 접근은 더 많은 사람들과 작은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근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서술이기 때문이며, 인과의 관계보다 의미를 찾아내는 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좀처럼 역사학이나 정치학의 연구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특정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과 재현, 기념과 의례 등을 다룬다는 것은 그 사건을 의미체계로서의 문화의 변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의미의 생성에 참여하고자 했던 다양한 주체의 형성과 지식과 이념의 수용, 번역과 변용 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사건으로 재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서양사학계에서 한때 화제가 되었던 신문화사의 수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편자들이 이러한

5) 박헌호·류준필 편,「책머리에」,『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출판부, 2009, 9~10면.

6)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아닌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적 각인은 현저히 '문화'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3·1운동 100주년의 대중정치와 민족주의의 현재」,『촛불이후, K-민주주의와 문화정치』, 역사비평, 2020 참조.

7)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3·1운동 관련 저작은 권보드래의『3월 1일의 밤』(돌배게, 2019)이었다. 한편 동아시아학술원은 한국일본사상사학회와 공동으로 〈3·1운동을 둘러싼 기억, 사상의 지형〉을 개최하였다.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1990년대 이래 (문학) 텍스트, 담론, 사건 등을 위계 없이 다루면서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주도하며 여러 분과학문의 연구자들을 학술장으로 한데 끌어들인 그룹이기 때문이다.[8]

사회학자 조형근은 '식민지근대성론'과 관련된 이천년대의 뚜렷한 문화사적인 성과를 두고 '국문학 침공'이라 언급한 바 있다. "지성사와 기존 정전연구라는 기존 문학사의 접근틀을 깨고 …… 문학 너머 사회의 세부 면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한" 국문학계의 "문화사의 성과물들이 교양독서대중을 지향하는 상업출판을 외화의 통로로 활용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실천으로서 문학(소설)의 역사적 종언이 함축하는 또 다른 현실은-인문사회과학 일반을 포함하는-'문학적인 것' 자체의 전반적이 위기와 시장에 대한 종속 강화"[9]로 맥락화한다. 러시아문학 연구자이자 비평가인 최진석은 "근대성을 주제화한 한국 현대문화사 다시 읽기/쓰기"로 현상한 "국문학계가 주도한" 문화연구의 흐름에 대해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인문학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한 면을 인정하지만 각종 국가지원에 의한 연구프로젝트에의 의존은 물론 분과학문 체계의 유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도 비판한다.[10] 식민지 근대성이란 아젠다와 문화연구의 결합을 주도한 '국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은 탈냉전의 이념적 공백과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로 대두한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 제도내에서의 온존과 확장, 출판시장의 개척까지 슬기롭게(?) 해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11]

---

8)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의 다음 논문을 참조.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천정환 "Cultural Studies' as Interdisciplinary Literary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9) 조형근, 「비판과 굴절, 전화 속의 한국 식민지근대성론-구조, 주체, 경험의 삼각구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3, 역사학회, 2009, 315~316면.

10) 최진석, 「급진적 문화연구의 기획은 실패했는가」, 『문화/과학』 81, 문화과학사, 2015, 122~123면.

11) 동아시아학술원은 창립 전후부터 기초학문연구, 중점연구소지원, BK, 인문한국사업 등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기금 수주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것을 통해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의 학회와 학술단체, 연구자들, 해외의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을 확보하였으며, 무엇보다 꽤 오랜 기간 대학원 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의 권위주의라는 이중의 압력은 성과주의적 경쟁, 연구 아젠다의 생명력 단축, 대학 내 연구자들의 위계화 등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폐해를 낳았으며 동아시아학술원도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김건우는 “국문학계”의 문화연구를 두고 벌어지는 위와 같은 진단을 두고, 단도직입적으로 언론학 연구자든, 맑스주의에 기반한 비판적 문화연구자든 한국 언론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몇이나 존재하는지를, 그리고 그 영역을 정작 누가 연구하고 있는지를 되묻는다.[12]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상기하자면, 3·1운동 이후 1920년대 한국 사상사 및 문학사뿐만 아니라 당대의 천도교 및 제 지역의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근거지 기능을 했던 매체의 성격을 지닌 『개벽』 연구를 전적으로 새롭게 개척한 것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여러 차례의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최수일[13]이었으며, 김건우를 비롯하여 박지영 등은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식인 매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상계』 연구를 국문학계를 넘어서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였다.[14]

김건우는 한국 현대문학의 연구방법론의 전환에 대해 ‘역사주의의 귀환’이라 규정하면서, 문학 텍스트의 해석으로 귀결되어 온 종래의 문학 연구 방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역사주의의 귀환’이란 텍스트의 경계를 허무는 것까지 나아간 것으로, 문학 텍스트를 문학사 내부의 질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더 많은 문학사 밖의 텍스트들로 그 상호 텍스트성의 축을 재설정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의미화된다.[15] 덧붙이자면, 문학이라는 텍스트의 중심성과 우위성을 철회하고 텍스트들 간의 위계를 없앰으로써, 텍스트, 담론, 사건은 동시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단일한, 목적론적 역사관을 충족시키지 않는 방식의 더 “두터운 역사화” 내지 “중층의 역사화”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

12) 김건우, 「역사주의의 귀환-한국현대문학 연구방법론」, 『한국학연구』 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참조.

13)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개벽』 의 위상」,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여기에 최수일의 『개벽』 연구는 1999년 『개벽』의 집단적 읽기 모임을 조직한 상허학회 공부 모임에서 출발했다는 것 또한 기록해 두고자 한다. 1993년 창립된 상허학회는 한국 근현대문학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동문화연구원은 이경돈이 기획한 〈『개벽』의 백년, 백년의 『개벽』〉(2020.10.7, 10)을 개최하였다.

14) 김건우, 『『사상계』 연구』, 소명출판, 2005.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이 연구팀에는 박지영 외에도 공임순, 장세진, 김예림, 김비란, 이상록, 김주현, 정진아, 김명임, 한영현, 정영진 등이 참여하였다.

15) 앞의 글, 408~508면.

지성사의 일부를 이루었던 문학사상 내지 비평, 시나 소설 등의 장르 전공에 귀속되는 작가론, 작품론, 그리고 문학사론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영역의 분류체계는 학위논문, 교수 임용 등과 같은 완강한 대학제도의 운용 속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 있으나, 그 분류체계를 허물어 온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의 연구를 귀속시켜야 할 학제는 더 이상 완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3 · 1운동 90주년 학술기획과 그 성과에서 보았듯이 동아시아학술의 연구영역의 하나로 근현대문학 영역이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동아시아학술원에서 탈식민 분단 체제하에서 민족주의와 문학의 신화화를 통해 구축된 국문학이라는 제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연구자들은 문학이라는 제도를 형성시켜온 제도와 규범, 그 주체들에 대한 더 두터운 역사화의 길을 개척했다. 20세기 말 소비에트의 붕괴로 자본의 전지구화와 그 주체성 형성의 기원을 현재주의적으로 보충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진 연구경향과는 길을 달리했다.

근대 매체, 근대어, 검열 연구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해방 후 분단과 전쟁으로 냉전을 치러야 했던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자신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서술하고 표현하고, 또 지식을 생산하고자 했던 20세기 한반도를 살았던 사람들과 집단의 실천에 초점을 둔 아젠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금지와 억압의 대상이었던 사회주의가 동아시아학술원의 공동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이 글에서 충분히 다룰 수는 없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 지속되었던 1970년대 이래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공동연구, 그리고 지속적인 여성문학, 여성운동, 페미니즘과 관련한 학술회의는 정치적이고도 사회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 언어가 부여되지 않거나 억압된 서발턴들의 언어를 가공하여 드러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음을 미리 말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늘 유념하고자 했던 것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로서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삶에 대한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이 글의 II장에서는 근대 매체, 근대어, 검열 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이 다양한 학제에 속했던 국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해 온 공동연구의 역사를 회고하고, III장에서는 공동연구들에 암류하는 주제 중 하나는 매체, 검열과 같은 제도만이 아니라 대중지식, 문학의 양식에까지 구조화된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였으며, 그리고 동아시아 탈식민 냉전체제하에서 이념 내지 사상이 체제, 제도, 행위, 삶에 각인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인 IV장에는 동아시아학술

원 창립 20주년이자 21세기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연구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한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에 대해 앞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이 일익을 담당해야 할 연구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Ⅱ. 근대 문화제도로서의 매체 · 근대어 · 검열 연구와 식민지

동아시아학술원은 초기부터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의 실제적 토대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의 축적에 깊은 사명과 책임을 표명해 왔다. 근대 매체가 근대성의 제도화를 매개하는 사상과 표상, 언어의 전변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능하며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사상, 정보 등 지식의 교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질료라는 인식에서였다. 진재교가 연구책임을 맡았던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3국(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인식>(2002~2005), 임경석이 연구책임을 맡아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역사연구소로 과제를 옮겨 완수한 <동아시아 근대 언론매체사전 편찬 및 디지털사전 DB 구축>(2005~2008, 2008~2010) 등이 그 예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많은 역사, 문학 연구자들이 힘을 보태어 이루어졌으며 데이터를 축적,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내가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거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매체”와 관련된 동아시아학술원의 학술활동은 대동문화연구원의 중점연구소지원 사업 <세계체제편입기 한국근대사회의 변동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의 제2 세부 주제였던 <근대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의 상관성>(2002~2004)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2004~2006) 등이었다.

첫 번째 과제는 “근대 전환기에 나타나는 문화와 사유체계의 변동을 규명하기 위해 그 변동의 상징인 언어질서,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 형태로서의 근대적 매체 및 의사소통 양식의 성립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16]으로 했다. 특히 19세기말 20세기 초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의 매체가 주동하고 매개했던

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근대 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의 상관성-중간보고서」, 2004. 6, 5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FRBR&metaDataId=4b6f22e31b4e911b011b4ed397350a1f.

인식론, 그리고 언어질서의 변화는 “근대적 국민 형성이라는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 책임을 맡은 한기형 외에도 류준필, 박헌호, 김월회, 차태근, 정환국, 이경훈 등이 참여하였다. 그 성과를 담은 단행본 『근대어 · 근대매체 · 근대문학-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2006)에서 확인할 수 있다.[17] 이 연구들에서 근대 전환기의 매체란 새로운 사회체를 지향하는 결사(結社)의 기능을 하며 새로운 언어체의 발명은 그 결사의 사유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분제와 지식의 독점을 떠받치던 동아시아 한문을 중심으로 한 문어질서를 해체하여 새로운 언어적 주체의 형성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그 주체를 국민이라 하든 민족이라 하든, 문화의 민주화 내지 지식의 대중화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새삼 일깨운다. 이렇게 매체와 언어라는 틀로 접근할 때, 근대문학이 근대 지식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는 시각을 드러내게 된다. 즉 문학은 독자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문학이 역사 속에서 수행한 다양한 형태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 전체의 지적, 문화적, 사상적, 교육적 영역과의 교섭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18]으로 보았다.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2005~2006)은 20세기 초에서 제2차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20세기 전반기를 시기적 대상으로 하여, 근대 지식시스템의 재생산 경로를 “공사립 교육제도와 각종 출판 주체, 신문과 잡지(학회지)와 같은 근대매체라는 회로”로 밝히고, 한국의 경우 그 식민지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데 있다. “구한말에는 국가권력의 사회제도 장악력의 미비로, 식민지 시기에

17) 한기형 외, 『근대어 · 근대매체 · 근매문학-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이 책에는 공동연구원 외에도 황호덕과 백지운의 논문이 보태져서 간행된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자국어’의 발견과 근대어의 모색 황호덕, 「국가와 언어, 근대 네이션과 그 재현 양식들」; 정선태,「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김월회, 「중국 근대의 어문개혁운동과 신체 산문에 관한 고찰」; 백지운, 「5.4 시기 『신조』그룹의 백화문 연구」. 2부 매체언어의 특질과 번역어 정환국, 「근대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방식」; 정환국,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류준필, 「근대계몽기 매체와 언어의 재현」; 정선태, 「번역과 근대소설 문제의 발견」; 김월회, 「신체 산문과 근대적 매체의 상관성」. 3부 매체의 담론과 문학의 담론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이경훈, 「『학지광』과 그 주변」; 이경훈, 「청년과 민족-『학지광』의 담론적 특성; 박헌호, 「매체로서의 근대소설과 내면의 서사」; 박헌호 「식민지 시기 ‘자기의 서서’의 성격과 위상」.

18) 한기형, 「책머리에」, 앞의 책.

는 식민지 권력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타성으로 말미암아 민간 영역의 상대적 역할 증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근대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민간이 주도한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논구하였다.[19]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한기형을 비롯해 류준필, 박헌호, 차태근, 정우택, 김현주, 이혜령 등이 참여하여, 십수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20] 문학이 근현대사에 있어서 특정한 지식의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 또한 이 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연구의 기획자들은 기존 사회의 의사소통 양식 대부분이 폐쇄되거나 억압받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문학이 지닌 내면적 직접성과 정치적 우회성을 지식인들이 문학을 자신의 정신을 토로할 수 있는 주요한 표현수단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하였다. 문학은 근대성을 지식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체화된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지식 전파와 습득에 생동감과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훨씬 더 진전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21] 문학은 강력한 식민지 검열 체제하에서 가장 말랑거리는 콘텐츠였지만[22] 바로 문학을 가장 말랑거리는 콘텐츠로 간주하게 한 조건, 즉 시사적이고 정치적 언설이 극도로 금압된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사상 텍스트의 기능을 수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문학은 당대인의

---

1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연차보고서」, 2005.6, 주초록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FRBR&metaDataId=4b76f6dc26d085210126dfa4efca22d1.

20) 아래의 논문은 『대동문화연구』 52호(2005)에 특집으로 편성되었다. 류준필, 「1910~19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 과정」;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차태근, 「19세가 중국 西學 그룹과 담론의 네트워크」; 김현주, 「3·1운동 이후 부르주아 계몽주의 세력의 수사학」; 그 밖에는 다음과 같다. 김현주, 「문화사의 이념과 서사전략」, 『대동문화연구』 58, 2007; 이혜령, 「『동아일보』와 외국문학, 해외문학파와 미디어」, 『한국문학연구』 34, 한국문학연구소, 2008; 류준필, 「京師大學堂 學科制度의 設立 過程과 '文學'의 位相」,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한기형, 「근대문학과 근대문화제도, 그 상관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상허학보』 19, 2007; 윤대석,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차태근, 「문학의 근대성, 매체 그리고 비평정신」, 『대동문화연구』 59, 2007; 정우택, 「아리랑 노래의 정전화 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57, 2007; 정우택, 「〈근대사조〉의 매체적 성격과 문예사상사적 의의」,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21) 앞의 보고서, 2면.

22) 이에 대해서는 문예란을 핵심으로 한 학예면의 형성이 계몽과 교양의 대상으로서 '아동'란, '부녀'란의 성장과 동시적이었음을 말한 졸고 참조.「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 2005.

삶의 과정으로 제시된 지금-여기에 대한 지식과 비평을 전달하는 유력한 텍스트였다.[23]

중점연구과제의 후속 기획을 하나 더 언급하자면, 근대적 국민 형성과 관련하여 한문질서의 해체와 한국, 중국, 일본의 근대어의 형성, 나아가 식민지적, 탈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근대 언어의 비균질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구였다. 당시 동아시아학술원의 원장이었던 임형택은 일찍이 이 아젠더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제출한 연구자이기도 하다. 임형택은 근대성이란 화두와 관련하여 자국어형성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주목하였다.[24] 그는 "언문일치의 자각과 함께 실제로 부상한 것은 국문체가 아닌 국한문체였다"[25]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국한문체'는 시대가 요구했던 계몽주의의 사명과 구국의 역사의식에 의해 태어난 표기체계였으며, '한문'은 지식의 한 분과로 전환하면서 근대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몽기의 '국한문체'가 지닌 그 자체의 역동적 · 창조적 의의에 대한 강조는, (근대)소설 중심의 근대문학사 서술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자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거의 방출되다시피 한 역사적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26] 계몽주의 사명과 구국의 역사의식으로 표현한 한자 · 한문의 역할이란 사실상 근대 문명과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대한 서술의 의도보다는 '근대 계몽기'의 한자 · 한문의 근대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천년 동안 사용해 왔으나 해방 후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과 근대화의 진전과정에서 점차 과거의 것으로 치부된 한자 · 한문을 한국 근대의 역사문화적 맥락 안으로 수렴해내려는 시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발전사의 목적지점-이광수, 김동인으로 대변되는 언문일치체-에 의해 가리워졌던 "국한문체"의 역사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위상』, 한기형 외, 『근대어 · 근대매체 · 근대문학-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더 나아가 『태백산맥』, 「순이삼촌」 등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문학작품의 기능을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24) 임형택, 「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1999; 임형택,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창작과비평』 107, 2000. 봄호.

25) 임형택, 「근대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400면.

26) 이에 대한 논의는 임형택(2000)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적 문화적 의미를 시사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

이렇게 자국어 내지 민족어로 표상, 제도화된 근대어의 형성 문제에 관하여 임형택, 한기형, 류준필, 그리고 필자가 힘을 보태어 <동아시아 근대 어문질서의 형성과 재편>(2006년 1월 20일), <근대어의 형성과 한국문학의 언어적 정체성>(2007년 2월 24일) 제하의 동양학학술회의를 기획, 개최할 수 있었다. 여기서 "동아시아 중세사회의 보편문어질서가 근대의 국민적/민족적 어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여기에는 기획자들 외에도 고야스 노부쿠니, 천핑위안, 무라타 유지로, 미쓰이 다카시 외에도 황호덕, 박진영, 김수림, 권명아, 김동석, 한수영, 서영채, 박광현, 윤대석 등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임형택은 "근대어문"의 형성을 근대주체, 매체, 그리고 언문일치라는 어문규범의 확립 차원에서 살피면서, "근대어문"을 근대 국민국가라는 정치제제의 성립과 함께 '민족'과 '자아'라는 두 차원을 지니게 된 "근대주체의 자기표현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신문학이 근대주체로 확립된 자아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서 창출되었으며, "자아의 인식과 지식의 확충에 따라서 신학문이 성립하였다"고 서술하였다.[28] 근대주체는 결단과 고투를 요하는 자기표현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인데, 이 두 학술회의의 결산물인 『흔들리는 언어들』(2008)의 서문에서 편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 우리는 언어라는 회로를 통해 다양한 근대의 인간군상을 만나게 된다. 예컨대 한문의 운명에 대해 고뇌해야 했던 근대계몽기의 한학자들, 복화술사처럼 여러 문체를 동시에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매체 편집자들과 번역문학자들, 식민지의 언어와 유리된 채 조선을 통치했던 총독부의 고위 관료들, 식민권력과 조선어 사이에서 근대어의 새로운 주형자가 되었던 검열관들, 전쟁 동원을 위해 식민지인에게 '조선어'학습을 명령한 식민지 관리들, 제 고향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방언을 구사했던 세련된 모던 시인들, 내선어(內鮮語) 사이에서 표류했던 재일 조선인들, 한글맞춤법을 오십 년 전의 것으로 돌리자던 한국

27) 이상의 임형택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 졸고에서 추려내었다. 이혜령, 「언어=네이션, 그 제유법의 긴박과 성찰 사이-한국문학 근대성 연구의 한 귀결에 대하여」,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247~248면 참조.

28)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0~11면.

> 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해방 후에도 남몰래 일본어로 일기를 적던 시인까지.
> ……
> 여기서 제목에 등장하는 '흔들리는' 이라는 표현의 유래를 설명해야 하겠다. 김사량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인의 처지에서 일본어로 글을 썼던 타이완 작가 룽잉쭝과의 서신 속에서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당신의 흔들리는 손을 본 듯합니다. 저의 독단인지도 모릅니다만, 감상인지도 모릅니다만."이라고 말했다. 이 짤막한 표현 속에는 식민지인의 일본어 글쓰기가 의식적인 선택과 결단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수치와 공포를 불러내는 계기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흔들리는 손"은 언어지배를 추구한 식민주의의 위력만이 아니라 그 실패를 증언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29]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체 · 언어 · 검열은 세트를 이루는 연구영역이자 근대지식과 문화의 재생산 제도이자 그것을 둘러싼 담론적 장으로 보는 방법적 시각이었다. 매체 · 언어 · 검열은 공히 "문화의 매개화(mediazation of culture)"[30]와 관련된 구성요소들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근대문화의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 국가와 자본의 가시적 비가시적 작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그리고 문화생산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들**과 그것을 통해서만 등장하는 개별 주체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대상에 내재한 방법적 시각을 지닌 연구영역을 주도한 한기형, 박헌호 등은 이를 문화제도 연구라 정의한 바 있다. "문화제도는 총체로서의 역사가 인간 삶과 교호하며 개인과 사회에 새겨 놓은 정신의 돋을새김이다. 역사의 운동은 문화를 매개로 인간에 수렴되며 인간이 사회적 지향성을 물질화하는 곳에서 제도의 현실적 의미가 탄생한다. 그런 점에서 근대문화제도란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의 시공간이 주형해 낸 물질화된 지향성이며, 삶을 양식화하는 구조이자, 인간의 제반 실천을 작동시키는 조건이다. …… 문화제도는 구조와 인간, 거대담론과 구체적 삶이 교호하고 횡단하는 접점이다. 한국 근대문화제도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한 성격과 편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법률, 기관, 과정 등으로 존재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권위와 관행들을 포괄적

29) 임형택 · 한기형 · 류준필 · 이혜령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30) "문화의 매개화(mediazation of culture)"에 대해서는 존 B. 톰슨, 김재호 · 이원태 · 이규정 옮김, 『미디어와 현대성』, 이음, 2010 참조.

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주의나 제도 물신화에 거리를 두면서 한국적 근대의 편향에 작용한 힘들과 그것의 구성 과정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시공간 안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구성했던 **인간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듯 확장된 제도 개념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31]

여기서 내가 강조한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궤적"은 비유컨대 어떤 작가나 사상가의 문학세계나 사상을 다룸에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연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문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그/그녀의 등단과정, 주로 작품을 실은 신문(사)와 잡지(사), 그 관계자들, 원고료와 저작권, 검열관, 특정한 문인집단, 그들의 유학경험, 심지어 문학적 소양을 쌓았던 고등학교 등은 그 자체로 파헤쳐져야 할 연구의 대상이다. 2003년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산하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근대적 작가의 탄생과 그 존재양태>(2003), <한국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분석>(2004~2005)은 단적으로 작가를 창조성의 기원으로부터 문학이란 제도를 유지, 재생산하는 사회적 관계의 한 결절이자, 그 자체로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보여주는 연구였다. 두 연구 모두 박헌호가 연구책임자를 맡았고, 전자에는 최수일, 박현수가 후자에는 이들과 함께 문영진, 심선옥, 박지영이 참여하였다.[32] 문학은 잡지만이 아니라 신문과 같은 중요한 근대매체와 관련하여

---

31) 유선영 · 박헌호 · 한기형, 「근대문화제도 연구총서를 간행하며」,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2~3면.

32)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제1부 작가의 탄생과 제도화 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현수, 「아동의 발견과 작가의 탄생-방정환의 초기 활동 연구」;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최수일, 「『개벽』의 '현상문예'와 '신경향파문학'」;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제2부 문학 '장'의 구축과 문화제도 심선옥, 「근대시 형성과 변역의 상관성-김억을 중심으로」; 박현수, 「동인지 『창조』와 소설이라는 글쓰기-재생산 제도로서의 번역」; 박지영, 「1920년대 '책광고'를 통해서 본 베스트셀러의 운명-미적 취향의 계열화와 문학사의 배제」; 최수일, 「근대문학의 재생산 회로와 검열-『개벽』을 중심으로」; 심선옥, 「근대시의 초기 정전화 과정-1920~1930년대 시인선집을 중심으로」; 문명진, 「김동인 소설의 정전화 과정-'회고'에서 교육장으로의 진입까지」. 제3부 문학이 향유, 재생산의 기틀 박현수, 「근대문학 재생산 제도와 방정환-미디어 주체와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수일, 「『개벽』 유통망의 현황과 담당층」; 박지영, 「잡지 『학생계』와 문학-1920년대 초반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양주의'와 문학적 욕망의 본질」; 박지영, 「『신여성』지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독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었으며, 나아가 신문사의 등단제도는 독자와 문단을 잇는 교량으로서 독자에서 작가가 되는 경로로 기능하여 문단 재생산의 핵심적인 방책임을 드러내었다. 더불어, 소년, 여성, 청년과 같은 정체성의 분화와 형성 과정이 곧 새로운 잡지와 독자집단의 분화와 형성과 동시적인 것이며 독자로서의 충성도와 특정한 정체성 형성에 독자투고 및 현상문예 등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는 개별 작가와 그 작품,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과 사상 연구의 관성을 깨고, 많은 사회적 관계와 절차를 복잡하게 경유해야 하는 지식의 형성과 교섭의 문제로 문화(통제)의 생산과 재생산을 보도록 하는 시각 교정을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무거운 표현양식일수록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면과의 접촉 내지 마찰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승희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식민지시대 문화 장의 동학>(2008-2010)은 희곡이나 연극이 아니라 '극장'에 주목한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시대의 극장이라는 공간은 "예술사 · 경제사 · 정치사 · 사회사 사안들의 결절지점으로서, 문화가 생성되는 장소였다"는 데 착목한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하에서 극장은 이를 대체할 만한 중요한 공간이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극장은 특정한 지역에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물을 접합하는 미디어이자, 공적/사적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었다."[33] 연구진으로는 이승희, 이호걸, 배선애가 참여하였으나 역사학자인 황병주, 연극사가인 이순진, 위경혜 등이 객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그 성과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두 차례 학술회의와 『대동문화연구』 특집을 통해 발표된 연구성과는 주로 문자매체에 국한되었던 매체 또는 미디어의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극장을 매개로 식민지 여러 집단과 개인의 행위와 지향, 욕망,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그 정치경제적 역학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였다.[34]

글쓰기'의 형성과정-만들어지는 글쓰기, 배제된 글쓰기의 욕망」; 박지영,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 연구-지식인 여성의 자기 표상과 지식 체계의 수용 양상」; 박헌호, 「근대문학의 향유와 창조-『연희(延禧)』의 경우」.

33) 이승희 외, 「(2008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 인문사회분야)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식민지시대 문화 장의 동학 연구계획서」, 2008. 이 계획서는 이승희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34)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

이들 연구에서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극장이 다른 어떤 공간이나 미디어보다 식민지적 자본과 권력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면서도 민족적으로 이원화된 식민지 사회를 드러내 주는 사회적 공간이자 알레고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제 곧 살펴볼 검열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식민지민들의 시위장소로 변할 수 있는 극장에 대한 여러 겹의 검열은 검열의 총체성과 궁극적 의도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검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지 봉기와 저항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말과 행위를 억압하는 데 있었다.

다시 상기해 보건대, '흔들리는 언어들'이란 말을 하고 쓰고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적 상황은 문학 혹은 텍스트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초과하는 유동적인 사태 속에서 문학 혹은 텍스트가 놓여 있음에 대한 비유이기도 했다.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식민지 사회의 언어적 상황은 특정한 언어와 규범의 강제 속에서 산출되는 언어 내셔널리즘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특징들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부과된 규범의 수행을 두고, 또 그것을 온전히 수긍할 수 없는 영혼의 고투 속에서 글 한 자, 한 자를 두고 멈칫해야 했던 어떤 인간의 형상들이 그 특징을 잘 지시하는데, 이러한 인간 형상은 검열 연구에서도 만나게 된다.

한기형의 『식민지 문역-검열, 이중출판시장, 피식민자의 문장』(2019)[35]이 출간되어 동아시아학술원을 근거지로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검열 연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다. 이 저서의 방법론적이고도 해석적인 개념은 '문역'(文域)은 '문역(文易)이라고 바꿔 읽어 본다면, 검열 연구의 지향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식민지 검열체제, 그것이 결과한 출판물의 합법적/비합법적 유통, 유동 속에서도 시장 규모와 출판물 종별의 차이, 지적 격차가 상당했던 이중출판시장을 형성하고 개입하던 행위자인 피식민자의 집합적 표현 이미지 내지 담론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승희, 「공공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함경도 지역 사례 연구」, 상동; 황병주, 「식민지기 공적 공간의 등장과 공회당」, 상동; 배선애, 「1920년대 준극장기관과 주체형성의 양상-소년회 활동을 중심으로」; 배선애, 「대구경북지역의 문화환경과 조선인 극장의 로컬리티-대구 만경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상동;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외국영화-1920년대 경성의 조선인 영화관에서의 외화 상영」, 상동; 이순진, 「1930년대 조선 영화문화의 변동과 조선인 영화상설관의 소멸-단성사의 몰락 과정을 중심으로」, 상동; 이승희, 「조선극장의 스캔들과 극장의 정치경제학」, 상동.

35) 한기형, 『식민지 문역-검열, 이중출판시장, 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 출판부, 2019.

이미지 내지 형상은 언어 없는, 소리 없는, 또는 소동을 할 뿐인 피식민자라는 식민주의의 인식을 뒤집어 놓는다는 점에서, 또한 피식민자의 언어, 표현 행위와 그 결과를 역동화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적이다. 이는 검열 연구의 근본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검열 연구는 내가 동아시아학술원에 부임하기 전후로 하여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참여해 온 연구 영역으로 이왕 정리한 논고[36], 그리고 또 몇 편 더 참조할 수 있는 논의들[37]이 있기에 이 글에서는 이 공동연구에 함께 했던 연구자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주최가 되어 검열 연구가 가시화된 것은 2004년 12월 17일 개최된 연례학술회의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을 통해서였으며, 2005년 1월 29일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와의 공동 국제 심포지움에서 <근대동아시아에 있어 검열 · 출판 · 문학>이 도쿄대에서 개최되었다. 전자의 학술회의에서 정근식, 한만수, 최경희, 박헌호, 한기형이 발표하였고[38] 도쿄에서의 학술회의에서는 이들에 더해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카와하라 이사오(河原功)가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맡은 고노 겐스케(紅野謙介)와의 만남도 있었다. 한기형, 박헌호, 정근식, 한만수, 최경희 등 '검열연구회' 멤버들은 이후에도 2005년 4월 시카고에서 열렸던 미국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서, 동국대 한국문화연구단 주최의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2005년 11월 26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주최의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2006년 12월7,8일)의 학술회의를 기획, 주도하였다. 이 과정은 검열연구의 영역과 시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미술, 음반, 영화, 그리고 제국 일본의 권역이었던 대만과 만주국에서의 검열과 그 기준의 차이 등이 연구되었

36) 이혜령, 「지배와 언어-식민지 검열의 케이스」,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253~283면.

37) 박헌호, 「'검열연구'의 여정과 가능성」, 『한국학연구』 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685~711면. 이재연 · 정유경,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새로운 검열연구를 위한 길마중」, 『대동문화연구』 11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295~337면.

38) 당시 사학과 교수 정현백의 사회로, 유선영, 이귀원, 이철우, 주명철, 임경석이 토론을 한 성대한 학술회의였으며, 『대동문화연구』 50호, 51호(2005)에 게재되었다. 박헌호, 「'문화정치' 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상동;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상동.

고, 수년간 식민지 검열을 학계의 중심적 이슈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물이 『식민지 검열-제도, 텍스트, 실천』(2011)으로 간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검열은 동아시아학술원의 리서치 클러스터(R/C)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과 교섭의 주요한 공동연구과제로, 한기형, 정근식, 이혜령, 니혼대 문리학부의 고노 겐스케, 고영란은 한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도쿄와 서울을 오간 수어 차례의 학술회의와 만남[39] 통해 그 성과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 『檢閱の帝國』 (2014), 『검열의 제국』(2016)[40] 으로 간행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근식은 우리의 공동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최경희와 함께 수행한 검열관, 도서과, 출판경찰, 검열기록 등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검열 연구에 기본 체계와 동아시아라는 역사적이고도 입체적인 편폭을 부여하였

39) 동아시아학술원 주최로 서울에서는 〈근대 검열과 동아시아I〉(2010.1.22.), 〈근대 검열과 동아시아 II〉(2012.3.17.)가 열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출판경찰월보』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검열기준, 풍속괴란과 관련된 검열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도쿄에서는 〈 檢閱の転移と変容-敗戰/解放期の文學とメディア〉(2011.7.23.), 〈亀裂・痕跡・錯綜-検閲の拡張と変容〉(2012.9.15.)가 열렸다. 이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에서 번역과 통역을 맡아준 임명신, 권정희, 신지영, 류충희, 김미정, 하시모토 세리, 김은애, 김태식, 타카하시 아즈사(高橋梓)에 대한 고마움을 여기에 기록해둔다.

40) 紅野謙介・高榮蘭・鄭根埴・韓基亨・李惠鈴 編, 『檢閱の帝國-文化の統制と再生産』, 新曜社, 2014. 정근식・한기형・이혜령・고노 겐스케・고영란 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부 제국의 검열체제, 한기형, 「법역과 문역-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식민지 텍스트」; 고노 겐스케, 「문학을 검열하다, 권력을 감시하다-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의 공투共闘」;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민주, 「일제하 조선어 민간신문 사진검열에 대한 연구-《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신문지면의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도에다 히로카즈, 「식민지 배경 소설과 일본의 두 개의 검열-요코미쓰 리이치의 《상하이》를 둘러싼 언론통제와 창작 사이의 갈등」. 제2부 풍속괴란, 검열되는 텍스트・신체・공간, 가네코 아키오, 「'풍속괴란'에 대한 시선-러일전쟁 이후의 '필화'를 중심으로」;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이승희, 「식민지조선 흥행시장의 병리학과 검열체제」; 나이코 치즈코, 「보이지 않는 징벌처럼-1936년 사토 도시코佐藤俊子와 이동하는 여자들」. 제3부 검열과 선전 사이: 전쟁・동원의 텍스트 정치 /고미부치 노리쓰구, 「펜과 병대-중일전쟁기 전기戰記텍스트와 정보전」; 이종호, 「검열의 상전이相轉移, '친일문학'이라는 프로세스」; 정종현, 「식민지 전향소설과 '감상록'의 전향서사」; 오다이라 마이코, 「누가 연극의 적인가-경시청 보안부 보안과 흥행계: 데라자와 다카노부寺高信를 중심으로」. 제4부 탈제국/탈식민 검열과 냉전, 도바 고지, 「'원폭시인' 상像의 형성과 검열/편집-도게 산키치峠三吉의 텍스트가 놓여 있던 정치적 환경」; 고영란, 「'조선/한국전쟁' 혹은 '분열/분단'-기억의 승인을 둘러싸고」; 사카키바라 리치, 「이동과 번역-점령기 소설의 양상들」; 임경순, 「새로운 금기의 형성과 계층화된 검열기구로서의 문단」; 후지이 다케시, 「한 '정치학개론'의 운명-탈식민국가와 냉전」.

다.[41] 특히 이 기회에 고노 겐스케와 고영란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한일 검열 공동연구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고노 겐스케는 일본 문학연구자로서『書物の近代 メディアの文學史』(1992),『投機としての文學 活字・懸賞・メディア』(2003) 등을 통해 일본에서 문화연구를 주도하였으며,『檢閱と文學』(2009) 등을 통해 제국 일본의 검열 연구에 초석을 놓았다. 우리 공동연구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감옥을 경험한 '내지' 일본인이자 지식인이 다시 제국 '내지'에 임했을 때 생겨난 인식과 실천의 연구를 통해 파상적이고도 복잡한 성찰과 실천을 제시하였다.[42] 돌이켜 생각해 보면, 21세기에 해소되지 않은 식민지 (피)지배의 과거사를 둘러싼 교착의 현실을 목도함과 동시에 우리와 수어년 동안 함께한 연구 과정 속에서 고노 겐스케 그 자신의 역사적 연루됨을 표현한 연구이지 않았을까 하는 소감을 피력해 둔다. 한편 일본 문학 전공자인 고영란이 아니었으면 이 공동연구는 단언컨대 불가능하였다. 언어적 장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도쿄에 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열어 주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전후라는 이데올로기』(2013)[43]에서 '전후'을 탈제국화한 일본의 프레임으로 규정한 그녀의 시각은 검열 연구에 와서 더욱 역동적이고 예리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즉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의 이후의 삶에 그어진 '전후'라는 이데올로기의 격자 내지 구속의 깊은 칼날을 들춰 내었다. 고영란이 해부한 것은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현재에도 일부러 보려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심부이며, 여전히 포함된 배제로서 기능하는 식민(지)의 실재 내지 유령에 대한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검열 연구는 식민지 나아가 식민지(성)을 필수불가분으로 하는 근대성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검열의 제국』의 서문에서 한국의 편자들은 이렇게 썼다. "식민주의가 침략과 점령, 그리고 그것에 의해 형성된

41) 정근식의 학자로서의 행장 속에서 검열 연구가 지니는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항 · 이혜령 기획 및 엮음,「정근식과의 대화」,『인터뷰: 한국 인문학의 지각변동』, 그린비, 2011 참조. 한편으로 그의 동아시아 냉전 · 분단체제에 대한 입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근식,「동아시아 냉전 · 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지구적 냉전하의 동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하기」, 임형택 엮음,『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 소명, 2014.

42) 다음을 참조. 고노 겐스케,「문학을 검열하다, 권력을 감시하다-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의 공투共闘」; 앞의 책.

43) 고영란, 김미정 옮김,『전후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 2013 참조.

부정적 의존 관계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인 이상, ‘검열의 제국’이란 문제 설정은 유효했다. 지역과 민족 간의 지적 문화적, 역사적 비균질성, 비균등성을 지배와 차별의 근거로 실정화해야만 유지되는 제국에 있어, 검열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통치기술이기 때문이다. 제국은 검열체제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표현의 권리를 줘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보편적인 문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적, 문화적 이동과 교통이 삶의 형식이 된 근대세계에서야말로 인간의 사상과 표현 행위를 통제하는 기술로서의 검열은 결정적이게 된다. 제국의 검열체제는 유형무형의 물류를 막을 수는 없는 근대의 세계상을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내지’와 ‘외지’의 연속과 불연속을 까다롭게 조율해야 했던 데서 탄생했다.”[44]

Ⅲ. 사상을 지닌 인간 또는 지식의 이동, 그 임계 동아시아 탈식민 냉전 · 분단체제

해방은 식민지 검열의 종식이 아니라 냉전 검열의 시작이었다. 2011년 2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친 학술회의 <탈식민 냉전 국가의 형성과 검열>은 천정환과 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 다음과 같은 기획의 변을 내세웠다. “탈식민’의 과정은 식민지 유산의 극복과 국민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법, 국가기구 등의 제도와 이념, 주체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의 실현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2차세계대전의 종전 후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탈식민 지역의 주민이나 민족에게 이 두 과제는 동시적으로 주어졌으나, 이 두 과제의 관계는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와 정치세력의 지형과 성격에 따라, 무엇보다 냉전의 형성에 의해 교착과 지연, 상쇄 등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의 탈식민 이후 사상통제와 검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적 과거에 대한 비평과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이념적 비전의 쟁투,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알리는 문화적 실천은 사상통제 및 검열체제를 형성, 변형시킨 활동이자 그 안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며, 이 와중에 남한

44) 정근식 · 한기형 · 이혜령 · 고노 겐스케 · 고영란 편, 「서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참조.

특유의 탈식민 냉전국가의 이념과 문화가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닌가"한다고. 미군정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포괄한 이 학술회의에서 정근식 · 최경희, 이봉범, 권명아, 고지훈, 김득중, 임경순, 조준형, 이영미 강성현, 김건우, 천정환이 발표하였다.[45] 정근식 · 최경희가 발표한 「해방 후 검열 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은 폭력적 격동의 시기였던 8.15 해방 이후 개시된 검열의 특별한 양상을 언급한 바 있다. 해방 이후 검열이란 폭력이 텍스트를 넘어 인신에 이를 때,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월경, 즉 월북/월남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46] 이 현상은 한반도의 주민들이 국민국가의 형성에 정치적 행위자로 전격적으로 등장하여 식민지 시기에는 박탈되었던 정치권력의 확보와 온전한 사회적 성원권 획득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탈식민화 과정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이 동시적이고 북한이란 사회주의 체제가 현실화되고 또 특정한 표상체계만이 허용되어 실정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사상통제의 폭력적 성격을 강화시켰으며 일상화, 대중화시켰다. 천정환의 「사상전향과 1960~1970년대 한국 지성사 연구를 위하여」에서 제시된 박정희 체제하에서 전향이라는 칠성판에서 가사를 경험한, 그리하여 완전히 무해하고 식물화된 지식인들의 초상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해방을 분단으로 맞이해야 했던 탈식민 냉전 분단국가의 언제나 불충분한 국가성의 현시에 사로잡힌 권력의 광포함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반복적인 전향의 맹서에도 간단없이 사형장의 주검이 된 김질락의 운명은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운명을 누구에게나 야기될 수 있는 우연적이고도 잠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식인집단 나아가 사회 전반을 겨냥했던 사상통제가 자기검열과 상호

45) 2011년 2월 18일 발표는 다음과 같다. 정근식 · 최경희, 「해방 후 검열 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들」; 이봉범, 「박정희체제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검열-1960년대 검열체제 연구를 위한 시론」; 권명아, 「소년범, 작가, 음란범-J의 탄생과 종말」; 고지훈, 「해방직후 미군정의 민간정보활동-냉전체제와 경찰국가의 부활」; 김득중, 「대한민국 국가이념의 형성과 국군의 역할」; 김학재, 「정부수립 전후 공보부/처의 성격과 활동」 둘째날 2월 19일 발표는 다음과 같다. 임경순, 「물적 자원의 재분대로서의 검열과 문학의 위치」; 조준형,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영화검열 체제의 작동방식과 논리」; 이영미, 「내가 체험한 1980,90년대 음반 검열과 음반법」; 강성현 「사상 검열과 전향의 기술의 역사-1930~1950년대 사상검사의 직무와 무기를 중심으로」; 김건우, 「1960년대 담론 환경의 변화와 지식인 통제의 조건에 대하여」; 천정환, 「사상전향과 1960~1970년대 한국 지성사 연구를 위하여」; 이 중 일부가 『대동문화연구』 74집에 특집으로 실렸다.

46) 정근식 · 최경희, 「해방 후 검열 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들」,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참조.

감시의 규율로 확립시키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탈제국으로 인해 수축되는 지정학의 변동과 함께 본격화된 냉전의 구조화가 신체에까지 좌우를 새겨야 하는 극단적 사상심문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중심으로 전쟁의 동원 문화와 냉전문화의 형성을 교직해 보려는 학술회의 <두 개의 전쟁 사이-1941~1953 동아시아 국가의 재형성과 문학> (2014년 8월 18일, 19일)[47]도 개최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15년 창립된 한국냉전학회의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창립 기념 학술회의 <냉전과 동아시아 분단체제>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48] 이 기획에 참여한 임우경과 필자는 이후에도 냉전학회와 함께 <사회주의 국제주의와 연대의 딜레마> (2017년 2월 24일>, <경계선을 부수는, 평화의 세기로> (2019년 6월 14일) 등을 기획, 주최하는 데 힘을 보태었다.

동아시아 탈식민 냉전체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냉전문화 연구자인 이봉범이 주도한 <1960~1970년대 냉전 문화를 읽다>가 그 예이다. 서구중심의 냉전(문화) 연구의 탈중심화를 위한 방법론과 의제 개척이 활발한 가운데서 열전과 냉전의 동시적 경험, 탈냉전기인 현재에도 (탈)식민, (신)냉전, 분단, 전지구화의 모순이 중첩된 한국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재차 일깨운 학술회

47) 이 학술회의는『檢閱の帝國-文化の再生産と統制』(新曜社, 2014) 간행 기념을 겸한 자리로, 고노 겐스케의 기념강연 「檢閱のグローバル化と權力の分散的配置ー文學の持続的効用について」가 8월 19일 이루어졌다. 발표는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18일 장신, 「전시체제기 매일신보 판본 비교 연구」; 강부원, 「확성기의 문법과 돋보기의 수사-식민지 시기 말『매일신보』의 지면 구성과 매체 운용」; 허민, 「문필보국(文筆報國), 사상병참(思想兵站)-1940~1945년『매일신보』문인 동원의 방법과 추이」; 서승희, 「국민화의 문법과 여성문학, 그 불/일치의 궤적-임순득의 글쓰기」; 이봉범,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북조선, 1948년 체제」; 와다 요시히로, 「'해방 후' 시공간에 대한 북측 문학에서의 회고의 스타일」, 2014년 8월 19일 박이진, '점령기' 일본 문학자들의 사상구도-『근대문학』파와『신일본문학』파의 '문학자상'을 중심으로」; 조은애, 「'조국' 전쟁의 듣기/쓰기, 그 육화 (불)가능성-한국전쟁기 김달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조은정, 「한국전쟁과 문화(인)의 배치-'적치 90일'의 선전선동사업과 문화공작대 활동」; 임우경, 「잉여국민과 동아시아 '냉전'-『전쟁 쓰레기』의 한국전쟁 포로 이야기」.

48) 다음과 같은 발표가 이루어졌다. 황호덕, 「한국문학비평이론의 냉전적 양상-신비평에서 문학사회학까지」; 임우경, 「한국전쟁 중국군 포로서사와 흔들리는 냉전의 사상지리」; 이병한, 〈밖에서 본 동아시아 분단체제-탈역사화와 재 역사화의 길항〉; 심주형, 「사회주의적 우애의 물신성-1979년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을 중심으로」; 기조발제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전후동아시아질서의 개념적 재구성과 '냉전'」.

의에서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발표로 이루어져 이 연구분야의 전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49] 발표자들은 구미 지식인의 저작의 수용과 번역, 창작, 출판활동, 일본, 해외와의 교류 활동에 가로놓인 다양한 차원의 문화기구 내지 장치들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의 냉전 문화 기구들의 문화정치에 있어 능동적 행위자로 초점화된 후진국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식생산활동을 통해 그려낸 이념적, 사상적 지평은 이념적 금기를 넘어선 것으로 독해될 가능성이 있는 원심력과 체제 재생산적 지식으로도 수축될 수 있는 구심력을 다 갖춘 유동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래 살펴볼 사회주의 연구에서 排中律에 의해 초점화되지 않았던 중간파 지식인을 해방기 전향과 관련하여 전격적으로 드러낸 이봉범의 연구[50]에 이어 1950~1960년대 미국이 주도한 세계적 냉전 문화기구와의 교섭, 협상을 통해 한국의 독재권력이 제한했던 자유주의의 공간을 창출하여 문화적 자율성을 모색하려 했던 더 넓은 중간파를 드러낸 동아시아학술원 최진석의 박사학위논문[51]이 냉전문화 연구의 또 다른 지평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 학술회의는 잘 보여주었다.

2016~2017년 촛불시위의 중요한 의제였던 블랙리스트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십세기는 물론 십수년 지난 21세기에서도 사상을 지닌 인간이란 내적 규정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의 행사에 의한 규정이기 쉽다.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종북 등이 호명된다. 그 외적 규정과 사회적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 개입은 언제나 다른 사회, 다른 삶을 향한 인간들의 크고 작은 움직임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른 사회와 다른 삶을 꿈꾸었던 인간의 지식생산과 활동이었던 같다. 그것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식인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앎에의 의지와 접속, 역능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

49) 이 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진 발표는 다음과 같다. 안서현,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번역과 해석 그리고 냉전의 문학지」; 이소영, 「문화 냉전과 도착적 젠더-한무숙과 박순녀를 중심으로」; 정미진, 「이병주의 세계기행문을 통해보는 냉전과 독재」; 반재영, 「후진국민의 정신분석-1960년대 '국민성 격론'과 냉전의 지식」; 최진석, 「문화냉전의 1960년대적 변이와 '참여'의 기로에 선 신생국가 지식인들-문화자유회의 한국위원회(1961~1968)의 활동을 중심으로」; 임유경,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조은애, 「탈/냉전의 접촉지대와 '연대'의 언어들 1960~1970년대 『한양』의 대화적 텍스트와 통일론을 중심으로」 등이다.

50)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51) 최진석,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 1954~1968-한국 지식인의 문화적 자율성 모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러한 관심은 일찍이 2006~2008년 동안 대동문화연구원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학적 표상>을 통해서 표명되었다. 이 연구는 박헌호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이승희, 천정환, 이봉범, 이호걸, 이혜령, 김현주, 장영은이 함께하였다.[52] 연구진들은 근대성 연구의 붐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 "프로문학"에 대한 연구 등 사회주의 연구가 현격히 사라진 이유를,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야기된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현실화에서도 찾았지만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금압의 대상이 된 정치, 사상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접근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 공동연구는 사회주의를 근대지식으로 다룸으로써, 운동사의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상황 등을 다룰 수 있었다. 예컨대, 광범위한 담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회주의의 대중적 파급력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 파급력은 사회주의가 '계급' 개념을 주축으로,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을 제공했다는 데서 찾았다. 즉 계급 개념 자신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각 국가간, 민족간의 관계 또한 해석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란, 인식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분석하는 지적 체계로서의 사회주의를 의미했다.[53] 더 나아가, 천정환이 '대중지성'이란 개념을 3 · 1운동 이후 일변한 사회 운동의 상황을 신분제 사회에서 천대받던 천민 집단인 '백정'의 형평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제시했던 맥락은 지금도 곱씹을 만하다. 그의 연구는 조명희의 「낙동강」에서 정치적 사회적 박해로 요절한 사회주의 운동가 박성운을 따라 그 뜻을 펼치기 위해 국경을

52) 구체적 연구성과는 『상허학회』 22와 『대동문화연구』 64의 특집을 통해 발표되었다. 박헌호, 「'계급' 개념의 근대 지식적 역학-사회주의 연구노트1」,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2008; 김현주,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189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이승희, 「1920년대 신문 만평의 사회주의 정치와 문화적 효과」; 이혜령, 「지식인의 자기정의와 '계급'-식민지 시대 지식계급론과 한국 근대소설의 지식인 표상」;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초기 형평운동과 「낙동강」에 나타난 근대 주체」;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사회주의는 사회비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 2008; 천정환, 「1920년대 '독서회'와 '사회주의 문화」, 상동; '이승희, 「프로-소인극, 정치적 수행성과 그 기억」, 상동 ;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상동; 장영은,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상동;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상동; 이호걸, 「사회주의와 눈물-프로문예의 서사와 신파성」 상동.

53)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은 연구계획서 외에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박헌호, 「'계급' 개념의 근대 지식적 역학-사회주의 연구노트(1)」,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2008 참조.

넘는 로사가 백정의 딸이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후 근대적 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자기자신에 대한 앎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사회에 천명, 각인하는 것이 곧 세계를 재해석하고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적인 것임을 논증한다.[54]

한편 한기형과 나는 염상섭의 문학을 사상의 양식(樣式)으로 간주하는 연구를 수년간 수행했다. 우리는 『염상섭문장전집』과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을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사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혹은 그것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억압되었던 20세기 한국에서 염상섭은 문학이라는 대중언어를 통해 자기가 처한 시대의 곤혹에 대해 지속적인 사유와 해석을 시도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염상섭의 문학은 사상의 형상이었다고 생각한다.[55]

> 염상섭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지적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킨 20세기 한국의 불운과 정면으로 맞서 사상의 영역을 지켜왔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그의 문장과 소설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독재라는 광기의 시대를 버텨왔다. 공론장과 학술영역의 위축 속에서 그는 직설과 비유, 간계와 독설을 동원해 말의 격조와 의미의 심연을 만들었다. 40여 년간 발표된 염상섭의 글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축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생각건대, 염상섭의 문학은 시간의 망각을 거절했다. 횡보는 그 자신이 겪었던 시간만이 아니라 역사의 부침 속에서 낙백하거나 추락했어야 했던 앞선 세대의 삶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의 운명 모두를 자기 문학의 나이로 삼고자 했다. 그가 노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동거해야 했던 토착성과 모더니티의 교착이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젊은이들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근대세계가 장악한 시간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경쟁이란 결국 패배할 운명 속에서만 계속되는 악무한의 주술이라는 것을, 그것이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개개인의 생을 통해서만 처절하게 증언된다는 것을 염상섭은 결코 잊지 않았다. ……"[56]

---

54) 천정환,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초기 형평운동과 「낙동간」에 나타난 근대 주체」, 『상허학보』 22, 상허학회, 2008 참조.

55) 이혜령, 한기형, 「책머리에」, 『염상섭문장전집』I,II,III, 소명출판, 2014 · 15.

염상섭이란 문제적 작가의 문학과 그의 광범한 문필가로서의 활동은 매체, 언어, 검열, 탈식민 냉전체제,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포괄하기에 충분했다. 필자의 검열과 관련된 연구는 모두 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57] 『염상섭 문장전집』의 자료를 추스르고 간행하고, 또 학술회의를 기획, 추진하는 데 있어 시종을 함께 한 오혜진과 이종호는 염상섭 연구에 있어 중요한 획을 그었다. 오혜진은 염상섭의 소설이 식민지라는 제약적인 조건 속에서 끌어다 써야 할 운동의 자원으로써 감정과 태도, 예술과 전통에 대한 심미안 등을 갖춘 인물형, 즉 심퍼사이저를 창조했음을 주장하였다.[58] 한편 이종호는 염상섭의 심퍼사이저라는 형상의 기원을 볼세비키 혁명 전후에 등장한 아방가르드운동에 대한 숙청에 대한 인식,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비판과 트로츠키의 전유에서 찾아냈다.[59] 이 두 논문은 자연주의와 아나키즘의 운동의 종횡을 서사로 삼은 『사랑과 죄』에 대한 황종연의 논문과 함께 일원화될 수 없는 반식민 저항운동의 풍요로운 사유의 자원들을 드러내어 보였다.[60]

덧붙일 것은 2013년 1월 17일, 18일 경향신문사와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의 제목을 <사상의 형상, 屛門의 작가-새로운 염상섭 문학을 찾아서>로 내걸었던 이유는 염상섭 문학이 서울의 성북동에서 혜화동, 계동, 현저동, 홍파동 등 골목어귀(屛門)를 오가며

---

56) 한기형, 이혜령 편저,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5 이 책은 2013년 1월 17,18일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경향신문사가 공동주최한 학술회의 〈사상의 형상, 병문(屛門)의 작가-새로운 염상섭 문학을 찾아서〉의 발표문들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또 일부의 논문이 『대동문화연구』 82, 2013과 『상허학보』 38, 2014 등에 특집으로 게재되었다. 필자들은 총 20명으로 전북대 영문과 명예교수이자 대표적인 염상섭문학 연구인 『난세의 문학』의 저자인 이보영 선생에서부터 오혜진, 장문석, 손성준, 이종호, 이용희 등 신진연구자들, 박현수, 이경돈, 박헌호, 심진경, 김항, 황종연 정종현, 김경수, 이철호, 서영채, 이경훈, 한기형, 이혜령 등이 필자로 참여하였다. 한편, 출판을 맡아준 소명출판 박성모 사장과 공홍 부장에게 이 지면을 빌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또한 『흔들리는 언어들』에 이어 『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의 표지 디자인을 해준 조지아주립대의 장문정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57) 대표적으로는 이혜령, 「사상지리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2012.

58) 오혜진, 「'심퍼사이저(sympathizer)'라는 필터-저항의 자원과 그 양식들-1920~1930년대 염상섭의 소설과 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4.

59)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의 사선(斜線)」, 상동.

60) 황종연, 「과학과 반항-염상섭의 『사랑과 죄』 다시 읽기」, 『사이間SAI』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서성이는 아래로부터의 삶, 그 마주침, 차라리 집을 나오는 길 위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Ⅳ.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로서의 역사, 또는 다른 삶

이 글은 내가 직접적으로 함께 하지 않은 공동연구나 아직 그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그러나 몇 가지 더 언급해 두기로 한다. '개념사'와 '번역'은 근대지식의 형성과 교섭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영역이 아닐 수 없으며, 동아시아학술원의 인문한국사업 초기의 황호덕은 이상현과 함께 구한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근대어 이중사전을 영인, 간행하였다.[61] 『한불자전』(1880)에서부터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까지 총12종의 사전을 어렵게 구해 영인, 해제하였다. 이 작업은 원형질에 가까운 근대어로서의 한국어가 생성되는 메트릭스를 보여주며, 접촉지대를 통해서 형성, 전파되는 근대 개념 형성의 원초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62] 번역과 지식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연구영역 중에 하나이다. 손성준이 조직한 리서치 클러스터 <정전(正典)과 동아시아 지식문화의 근대>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식과 권위가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근대의 지식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대안적인 인식체계의 계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최근 간행된 손성준의 책 『근대문학의 역학들-번역주체, 동아시아, 식민지 제도』[63]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번역은 이차적인 저작이나 창작의 그림자가 아닌 그 자체로 창장과 양식의 생성적 내부일 뿐만 아니라, 일국적일 수 없는 근대 지식문화의 규범을 익히는 장으로서도 활용된다. 그 규범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성과 검열과 같은 식민지 제도에 의해 규제되어 형성됨은 물론이다. 박은영이 조직한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은 동아시아 지식의 연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61) 황호덕 · 이상현,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전 11권, 박문사, 2012.

62)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는, 황호덕 · 이상현, 『개념의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I, 박문사, 2012 참조.

63) 손성준, 『근대문학의 역학들-번역 주체 · 동아시아 · 식민지 제도』, 소명출판, 2019.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국가로의 재구성 양상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지난해는 <정치행위자로서의 번역가-근대 동아시아의 서양지식담론 수용>(2019.10.11.) 등을 개최하였다. 이 두 R/C는 동아시아학술원의 박사 졸업생들인 신진연구자들이 책임자로 있기에 앞으로도 큰 주목을 요구한다.

이제 글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다. 천정환과 나, 그리고 김원, 김예림이 2011년 초겨울 무렵에 발의하여 오랫동안 지속해 온 공부모임 <아래로부터의 글쓰기와 문해(literacy)의 사회문화사>는 주로 1970~1980년대 노동자 글쓰기, 노동문학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연구사에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으며[64], 천정환과 나는 USC 한국학연구소와의 학술회의, 박선영이 편한 책

64) 학술회의로는 2013년, 2014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아래로부터의 글쓰기, 타자의 문학〉 I(2013.11.8, 9) II(2014.11.14, 15), 2016년 2월 17일 〈1980년대 '문화의 위치'와 변혁운동〉, 2019년 〈노동 세대 젠더〉(2019.12.20, 21) 등이 있다. 이들 학술회의를 통해, 그리고 그밖에 공부모임을 통해 간행된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영인, 「글 쓰는 노동자들의 시대-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 다시 읽기」,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김대성, 「해방의 글쓰기-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 재론」; 정종현, 「노동자의 책읽기-1970~1980년대 노동(자) 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사」; 김원, 「80년대에 대한 '기억'와 '장기 80년대'」, 『한국학연구』 3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김예림, 「빈민의 생계윤리 혹은 탁월성에 관하여」, 상동; 정종현, 「투쟁하는 청춘, 번역된 저항-1980년대 운동세대가 읽은 번역 서사물 연구」; 박철현, 「중국 개혁기 공장체제 연구를 위한 시론-동북 선양(瀋陽)과 동남 선전(深圳)의 역사적 비교」 상동; 나카야 이즈미, 「여자 공장 노동자의 글짓기」, 상동; 그 외에도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운동」,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2014;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33, 대중서사학회, 2016; 천정환, 「1980년대 문학 · 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시대와 문학론의 '토픽'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연구, 2014;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2017; 김예림, 「노동의 로고스피어-산업-금융자본주의 회랑의 삶-언어에 대하여」, 『사이間SAI』, 한국국제문학문화학회, 2013; 김예림, 「어떤 영혼들-산업노동자의 '심리' 혹은 그너머」,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이혜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17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이혜령, "Is A Lone Room (Oettanbang) Labor Literature? An Intellectual Female Writer's Record of Working-Class Women's Sexuality", *Sungkun Journal of Eas Asian Studies*, Vol.20, No.2, AEAS, 2020; 정고은, 「노동이 멈춘 자리-방현석 노동소설 재독-」, 『반교어문학회』 46, 반교어문연구, 2017; 정고은, 「'전태일'의 이름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1980년대 전태일문학상의 주체와 양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7, 상허학보, 2019; 김성환,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작업에도 필자로 참여하였다.[65] 그러나 촛불시위, 386 세대론을 중심으로 펼쳐진 세대론, 갈수록 취약해진 노동의 위상은 이 공부의 맺고 끊음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되어 시금석이 될 만한 연구성과를 기대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요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와 동아시아의 근현대 역사로부터, 무엇보다 현재진형행인 "아래로부터의 글쓰기"를 포착해냄으로써 드러내고자 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어느 학술회의의 기획의 변에서 "21세기 한국에서의 80년대의 귀환을 생각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 · 텍스트 · 담론의 생산에 출현하고 개입하였던 노동자, 여성, 빈민 등 사회적 정치적 소수자와 그 행위가 매개하여 생성된 문화의 진동에 있다. 그것은 체제, 구조, 제도의 목적을 재배치하고자 한 변혁운동과 그 이념, 원칙의 구현이기 전에,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동료들의 고통과 우울, 근심을 살피면서 자아의 정체성과 사회적 삶의 의미를 되물었던, 아래로부터의 호명에 대한 응답이지 않았을까?"[66]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로부터의 글쓰기"란 거절되었지만, 거부될지도 모르지만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운동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역사를, 그리고 그 연대의 기록에는 언제나 다른 삶에 대한 열망과 이미지를 담고 있었음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동아시아학술원이 여성들의 문화적 등장, 나아가 페미니즘 운동과 문학에 관심을 가져왔던 소이와도 맞닿아 있었다.

한국여성문학학회와는 한국의 대표작가이자 여성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박완서를 다시 재해석하는 두 차례의 학술회의,[67] 그리고 지난 해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2019.5.11.)을 성황리에 공동개최하였다. 그에 앞서 2015년 7월 3일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와의 공동학술회의 <한국사회와 성/문제: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까지>, 2017년 7월 7일 상허학회와의 공동학술회의 <여자들이 쓴 여자들, 그 이후: 한국 여성주의 지식 문화 생성의 여정> 등에서 공동 기획자들

2016; 이윤종,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2010년대 한국영화 속 여성 프레카리아트 재현」, 『석당논총』 69, 석당학술원, 2017; 전우형, 「한국 노동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적 기원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연구스, 2017 등이다.

65) 2015년 USC의 박선영이 주도하여 성사된 한국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회의 결과는 *Revisiting Minjung* (ed by Sunyoung Park,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9)으로 간행되었다.

66) 학술회의 〈1980년대 '문화의 위치'와 변혁운동〉(2016.2.17.) 기획의 변.

67) 박완서 선생을 추모하며 2011년 4월 30일 〈한국 근현대사와 박완서〉를 2018년 11월 10일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 등을 동아시아학술원과 한국여성문학학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진단했다. 백문임, 강지윤 등과 함께 한 전자의 기획의 변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사회는 21세기에 들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여성혐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정상화한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다른 한편 걸 그룹과 짐승남이라는 한국적이랄 수밖에 없는 성적 젠더적 정체성을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방 70주년을 즈음한 이때 여전히 세계를 순회하는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공전하는 가운데, 젠더 정치에 인종 정치가 포개지면서 누구와 살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친밀성의 거대한 갈등적 전환을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은폐하고 있다.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성/문제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은밀하고도 격렬한 사회적 삶의 실제와 권력관계, 상징체계를 드러내는 데 유효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이른바 장미대선 직후에 있었던 학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87년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곡절 끝에 어떤 가능성의 문턱에 당도해 있다. 가능성의 문턱에서 우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모이고, 그 여성을 자신인 듯 말하고 쓰기 시작한 여성들의 집단적 출현이 셈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여성주의의 도래를 목도하며, 1980년대 본격화한 여성운동과 여성주의 지식문화는 그 형성부터 여성의 말을 듣고 쓰는 여성들의 등장과 여정에 힘입었음을 돌이켜보고자 한다. 저 먼 수화기 너머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매 맞는 아내들과 여성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끊임없이 말해온 위안부 할머니들, 일과 투쟁의 세월을 쓴 여성 노동자들, 페미니즘 저널을 탄생시킨 여성 기자들. 어디에서라도 그러하듯이, 여성주의는 여자들이 말한 여성-인간, 그 말을 받아쓰고 세상에 전하기를 애썼던 여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 이후, 여성들에게는, 또 세상에는 정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지난 수어년 간 대한민국의 장구한 문화변동 내지 문화혁명을 예고한 것은 페미니즘의 재점화였음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선학과 선배들, 나의 동료들의 학문적 고투와 동아시아학술원에 대한 헌신을 배우고 존중해 왔지만, 짧지만도 길지만도 않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역사가 학문적 갱신 없이는 곧 낡은 신화가 되고, 녹슬어 갈 우상들과 함께 스러질까봐 두렵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동아시아학술원, 깊은 인적, 학문적 유대를 가져왔던 주변 기관들이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여성문화사 연구자, 페미니즘 비평가를 배출했다는 사실이다.[68] 이는 우연이 아니고 그런 만큼 동아시아학술원과 성균관대 인문학의 미래를 낙관하게 된다. 물론 그들은 모교나 동아시아학술원에 자신의 학문적 성과가

귀속될 존재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주도하고 조직해 나갈 학술장을 만드는 데 동아시아학술원이 물심양면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학 미래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투고일: 2020.11.10 심사일: 2020.12.07 게재확정일: 2020.12.18

68)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학, 문화의 표상〉에 함께 했던 장영은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2017)로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학위논문에서 여성들의 글쓰기가 사회적 삶의 지속과 생존과 결부된 것이었음을 논한 장영은은 최근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글쓰기로 한계를 극복한 25명의 삶과 철학』(민음사, 2020)을 출간하였다. 검열 연구를 함께 했던 류진희는 마찬가지로 동아시아학과에서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여성 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2015)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현대여성문화 연구에 중요한 시사를 한 「팬픽: 동성(성)애의 서사의 여성 공간」(『여성문학연구』20, 2008), 「'촛불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사이』 19, 2015)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염상섭 연구를 함께했던 오혜진은 기획한 책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민음사, 2018)과 그 자신의 문학평론집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오월의 봄, 2019) 등을 통해 한국문학사를 가로지르며 역사의 물신화와 젠더 · 섹슈얼리티 체계과 결합된 된 정상성을 심문해 왔다. 검열 연구 과정에서 번역을 수시로 해준 김미정은 『움직이는 별자리들-잠재성, 운동, 사건, 삶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시론』(갈무리, 2019)에서 2015년 전후 페미니즘 리부트 등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대의제나 대표 없는 '공통장', '함께' '삶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잠재성과 상상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성찰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근대 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의 상관성-중간 보고서」, 2004.6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FRBR&metaDataId=4b6f22e31b4e911b011b4ed397350a1f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연차보고서」, 2005.6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FRBR&metaDataId=4b76f6dc26d085210126dfa4efca22d1

고영란, 김미정 옮김,『전후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 2013
권보드래,『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김건우,『『사상계』 연구』, 소명출판, 2005
김미정,『움직이는 별자리들-잠재성, 운동, 사건, 삶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시론』, 갈무리, 2019
김항 · 이혜령 엮음,『인터뷰: 한국 인문학의 지각변동』, 그린비, 2011
박헌호 · 류준필 편,『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출판부, 2009
박헌호 외,『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미야지마 히로시,『나의 한국학 연구』, 너머북스, 2013
『사상계』 연구팀,『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사상계』』, 소명출판, 2012
손성준,『근대문학의 역학들-번역 주체 · 동아시아 · 식민지 제도』, 소명출판, 2019
오혜진 외,『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오혜진,『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 봄, 2019
임형택 엮음,『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 소명출판, 2014
임형택 · 한기형 · 류준필 · 이혜령 외,『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장영은,『쓰고 싸우고 살아남다-글쓰기로 한계를 극복한 25명의 삶과 철학』, 민음사, 2020
정근식 · 한기형 · 이혜령 · 고노 겐스케 · 고영란,『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존 B. 톰슨, 김재호 · 이원태 · 이규정 옮김,『미디어와 현대성』, 이음, 2010
천정환,『촛불이후, K-민주주의와 문화정치』, 역사비평, 2020
최수일,『『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한기형 외,『근대어 · 근대매체 · 근매문학-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한기형 · 이혜령 편,『염상섭 문장전집』 I, II, III, 소명출판, 2013, 2015
한기형 · 이혜령 편저,『저수하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소명출판, 2015

한기형,『식민지 문역-검열, 이중출판시장, 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 출판부, 2019
황호덕 · 이상현,『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전 11권, 박문사, 2012
_____,『개념의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I, II 박문사, 2012
紅野謙介 · 高榮蘭 · 鄭根埴 · 韓基亨 · 李惠鈴 編,『檢閱の帝國-文化の統制と再生産』, 新曜社, 2014
Sunyoung Park(ed), Revisiting Minjung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9

김건우,「역사주의의 귀환-한국현대문학 연구방법론」,『한국학연구』4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류진희,「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팬픽: 동성(성)애의 서사의 여성 공간」,『여성문학연구』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_____,「'촛불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사이間 SAI』19, 2015
박헌호,「'검열연구'의 여정과 가능성」,『한국학연구』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오혜진,「'심퍼사이저(sympathizer)'라는 필터: 저항의 자원과 그 양식들-1920~1930년대 염상섭의 소설과 평문을 중심으로」,『상허학보』38, 상허학회, 2014
윤해동,「'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도면회, 윤해동 엮음,『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2009
이재연 · 정유경,「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새로운 검열연구를 위한 길마중」,『대동문화연구』11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이종호,「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의 사선(斜線)」,『상허학보』38, 상허학회, 2014
이혜령,「언어=네이션, 그 제유법의 긴박과 성찰 사이-한국문학 근대성 연구의 한 귀결에 대하여」,『상허학보』19, 상허학회, 2007
_____, Time of the Nation, Time of the Capital, Korea Journal, 47, 2011
_____,「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상허학보』38, 2012
_____,「지배와 언어-식민지 검열의 케이스」,『반교어문연구』44, 반교어문학회, 2016
장영은,「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정근식 · 최경희,「해방 후 검열 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들」,『대동문화연구』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조형근,「비판과 굴절, 전화 속의 한국 식민지근대성론-구조, 주체, 경험의 삼각구도를 중심으로」,『역사학보』203, 역사학회, 2009

천정환,「'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상허학보』19, 상허학회, 2007
_____, "'Cultural Studies' as Interdisciplinary Literary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최수일,「1920년대 문학과『개벽』의 위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최진석,「급진적 문화연구의 기획은 실패했는가」,『문화/과학』81, 문화과학사, 2015
황종연,「과학과 반항-염상섭의『사랑과 죄』다시 읽기」,『사이間SAI』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Tani E. Balow, "Debates Over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and Another Alternative", Cultural Studies Vol. 26, No. 5 September 2012

The Trajectory and Future of Research on Modern East Asian Media, Languages and Censorship

Lee, Hye-ryoung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AEAS) organized and led joint researches focusing on topics such as 'East Asia' discourse and colonial modernity i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rom the time of its opening. The joint research was visualized as a research agenda that led to modern language, modern media, and censorship.

The people who led these projects was researcher of Korean literature such as Lim Hyung-taek, Han Kee-hyung, Park Heon-ho and Ryu Jun-pil from the beginning. They started from the reflection on the system of Korean literature built through the mythology of nationalism and literature under the postcolonial division system at that time, and pioneered the system and norms that formed the system of literature and worked the way of thicker historicalization of its subjects. In this regar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led to a different way from the modernity that did not tend to supplement the origin of capital globalization and its subjectivity formation.

What AEAS tried to reveal consistently through media, language, and censorship studies was that despite the history of colonization and division under the Cold War, the will and practice of modern Koreans for self-expression revealed. Therefore, socialism, which was the object of oppression in the capitalist system, became a subject that penetrated the media, censorship, and literature studies of Yeom Sang-seop. The above joint research evokes the humanities theme of history as a solidarity of the people who want to speak or the pursuit of alternative life. AEAS has brought interest in women's literature and feminist movements as a history of women's expression and writing, through joint research with several academic societies, and the "comfort women"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A more full-fledged joint research on this should be promoted. Fortunately, the fact that many feminists grew up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in and around AEAS will be the brightest light for our humanities.

Key Words : East Asia, colonial modernity, modern media, modern languages, censorship, cultural institutions, socialism, feminism